



(국문/영문)이름: 권준수/Kwon, Jun Soo

(국문/영문)직위: 교수/Professor

(국문/영문)소속: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국문/영문)기타소속: 정신과/뇌인지과학과  
Psychiatry/Brain & Cognitive Sciences

## (국문) 강연제목: 정신의학, 왜 대전환기인가?

### Abstract (국문):

지금 정신의학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주관적인 증상이나 개인적 사고, 행동으로 평가받고 진단받던 시대에서 객관적 수치화를 통한 증상의 평가와 생물학적 지표 (Biomarker)를 이용한 분류나 치료로 바뀌고 있다. 특히 ICT를 이용한 디지털 혁명은 의학 분야에 급격히 도입되어 질병의 진단과 치료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신의학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나 현상을 통한 진단과 치료는 그 기저의 원인인 뇌의 변화, 신경세포의 연결의 이상, 유전자 이상과 같은 생물학적 원인과는 동떨어진 진단과 치료이기에 그 동안 상당한 한계에 부딪혀 온 것이 사실이다. 생물학적 지표를 이용한 분류나 치료방법에의 적용은 원인에 좀 더 근접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주관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정신현상을 객관화시킨 디지털 데이터를 통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표현형(digital phenotype), 클라우드를 통한 대규모 실시간 자료, 이를 분석하는 AI 시스템 등은 향후 정신의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특히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새로운 sensor 개발, 의학과 공학,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로 정신질환의 치료에는 물론, 질병을 평소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신의학은 이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 Brief Biosketch (간단한 이력, 연구/대외활동 소개, 국문)

現 보건복지부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 총괄위원장/서울의대 인간행동과학연구소 소장/한국과학기술한림원/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CINP councillor

前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한국뇌기능매핑학회 회장/서울대학교병원 미래전략본부장, 홍보실장, 교육인재개발실장, 정신건강의학과 과장/국가임상시험사업단 위원/대한조현병학회 이사장/

대한불안의학회 회장/국제조현병학회(SIRS) Board of directors

대한의학회 분수의학상/아산의학상(임상의학부문) 수상/Paul Janssen 정신분열병 연구자상/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자상/에밀 폰 베링 의학대상 등 다수

약 350 편이상의 SCI(E) 저널에 논문 발표

'뇌를 읽다 마음을 읽다'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정신분열병:A to Z" 등 다수 저서/역서